



**오늘의 성가**

입 당	24	내 맘의 천주여	성 체	156 178	한 말씀만 하소서 성체 앞에
봉 헌	211 217	주여 나의 몸과 맘 정성 어린 우리 제물	파견	6	찬미 노래 부르며

**말씀의 초대** 卍 지혜서의 저자는, 주님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했다고 한다(제 1 독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며,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다(복음).

**제 1 독서**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卍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1 과 12,18-19,20 과 22(◎ 12 ㄴ 참조)



**후렴:**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골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卍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9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 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2-4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 때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죽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쫓이 쫓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것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li> <li>▪ 방도밍고 영혼을 위하여 - 임영재(안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흥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 사. 모 / 후원기(에우세비오) 가족</li> <li>▪ 김 비오, 마리안나 가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li> <li>▪ 유미선(클라라)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손 아네스</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008	OLM 주일 헌금	\$ 3,586	미사 참례자 수	170 명	
KCC 이차 헌금	\$ 500	OLM 이차 헌금	\$ 1,049			
교무금 (\$ 2,150)	이대우(7) 하건철(6-9)	이창우(8) 우영인(7-8)	서경호(7-8) 이경우(7-8)	서영원(7-8) 이상화(8)	손종철(7-8) 오용운(7-8)	임문수(8) 최율리오(8)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b>Our Lady of Mercy</b>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 본당 신부님 휴가 안내**

• 신부님 휴가 일정이 7/27(토) - 8/12(월)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저녁 7시 (영어 특전미사)  
2019년 8월 15일(목) 오전 9시 (영어)  
2019년 8월 15일(목) 저녁 8시 (한국어)  
• 장소: 성당

**◆ 예비자 교리반 안내**

• 교육기간: 2019년 10월 - 2020년 부활절  
• 대상: 예비신자  
• 문의 사항: 사무실 또는 선교분과장 이서형(요안나)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야외미사**

• 본당 야외미사가 10월 6일(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도서관리 봉사자 모집**

• 본당 도서 관리 봉사해주실 분 또는 단체를 구합니다.  
• 문의: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분과장 신용철(다니엘)

**◆ 본당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9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참가비: 100불  
• 성당 입구에 신청서를 비치해두었으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스폰서쉽 안내
 

- 타이틀 스폰서 \$500
- 토너먼트 스폰서 \$300
- 홀 스폰서 \$100-\$200

**◆ 후보 광고주 모집**

• 9월부터 발행되는 새 주보에 게재될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란에 격주로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mazonSmile 실시**

• Amazon 을 통해 구매하시는 상품가격의 0.5%를 Amazon 에서 에디슨 한인성당에 기부하게 됩니다.  
• smile.amazon.com 으로 이용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Gift 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amazonsmile/>

◆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

- 날짜 : 2019년 8월 14일(수) 4PM - 8월 18일(일) 3PM
- 장소 : Loyola Retreat House, Morristown NJ
- 주제 : 내적자유를 위한 여정
- 주제 강사 : 구동욱 미카엘 신부 (예수회)
- 참가비 : \$480 (선착순 50명)
- 신청 문의 : 이 이사벨라 (732-947-1026)

◆ 뉴욕/뉴저지 제 4 차 선택 주말

- 날짜 : 2019년 8월 31일(토) 10AM - 9월 2일(월) 3PM
- 참가대상 : 1981-1997년생 청년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 Rt206, Newton, NJ 07860
- 참가 신청 : [www.choicenynj.com](http://www.choicenynj.com) (7/1-7/31 선착순 50명)
- 참가 문의 : [choicenynj@gmail.com](mailto:choicenynj@gmail.com)
- 참가 신청비 : \$250 (\$50 non-refundable deposit)

◆ One-Day 9-Mile Walking Pilgrimage

- 메타천 교구 주관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신 St. Juan Diego 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영성의 순례길 행사가 있습니다.
- 날짜 : 2019년 9월 21일(토) 10AM - 8PM
- 장소 : Immaculate Conception Parish
- 참가 신청 : [www.LightingHeartsOnFire.org/walking-pilgrimage](http://www.LightingHeartsOnFire.org/walking-pilgrimage)
- 참가 신청비 : \$20 (8/30 까지 신청자에 한함)  
\$25 (8/30 이후 신청자)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여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 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 10월 27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 10월 11일 (금)
- 온라인 등록 : <https://diometuchen.org/offices-and-ministries/family-and-pastoral-life/family-life/silver-and-gold/>

◆ 8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8/24-8/25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8월 1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 8월 18일(주일) 미사 후
- 장소 : 한광동(바오로) 형제님 댁

◆ 반석회 모임

- 일시 : 8월 24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12,32-48(연중 제 19 주일)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루카 12,32)

1.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 작은 양 떼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상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표정, 목소리, 몸짓을 떠올려 보며 이 말씀에 깊이 잠겨 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루카 12,34)

2. 이 구절의 또 다른 표현은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존할 수 없는 보물(재물) VS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37)

3. 예수님께서서는 위임 받은 임무에 충실한 종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어 봅니다.

✂ 루카 12,49-53(연중 제 20 주일)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1. 성경 속에는 ‘불’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지르러 오신 불”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도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

2. 예수님은 ‘분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맞설 것이다.” (루카 12,52)

3.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집안에서 의견이 나뉘어 서로 맞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타협이나 중립 없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니다..